

2018년 7월 5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유럽 증시, 업종별 차별화 속에 혼조 마감

자동차 업종과 에너지업종 상승한 반면, 원자재 업종 부진

무역분쟁과 미국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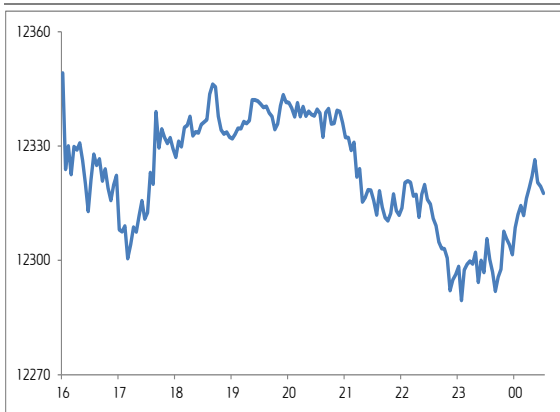
유럽증시는 미 증시가 휴장인 가운데 거래량이 감소하며 혼조 마감. 비철금속 가격 하락 여파로 리오틴토(-2.28%), 글렌코어(-0.48%), 아르셀로미탈(-0.90%) 등 원자재주가 하락한 반면, E.ON(+2.33%), RWE(+1.80%) 등 에너지 업종은 상승. 한편, 유럽산 자동차 관세 이슈가 불거졌음에도 다임러(+0.55%), 폭스바겐(+0.49%) 등은 상승. 유럽 증시는 7월 6일 미-중간의 관세 부과와 미국의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은 양상

최근 몇 달 동안 글로벌 증시의 화두는 무역분쟁 이었음. 시장참여자들은 이를 주시하고 향후 변화가 글로벌 경제와 기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지 주목. 이런 가운데 팩트셋은 2분기 S&P500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0.0% 증가할 것으로 추정. 또한 애틀란타 연은은 GDPNow 를 통해 미국의 2분기 GDP에 대해 4.1% 성장 전망. 더불어 6월 ISM 제조업지수는 전월(58.7) 보다 크게 개선된 60.2로 발표되며 미국 경기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분석. 그러나 이날 발표된 제조업지수 결과는 배송시간이 크게 증가(62.0→68.2) 한 점이 주요 요인

제조업체 경영자들은 공급라인이 한계인 가운데 무역분쟁이 추가 생산 및 고용관련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 미국 상공회의소가 무역분쟁으로 제조업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구하기 힘들어지고 비용 또한 증가할 수 있기에 무역분쟁을 당장 그만 두라고 주장한 이유. 실제 ISM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전자 부품 공급 문제로 인해 생산이 중단되고 있다", "잠재적인 무역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관세 부과로 원자재 가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 라고 주장. 이렇듯 무역분쟁이 미국 기업들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한편, 미국 독립기념일을 맞아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있었으나 무역분쟁 관련된 내용은 없었고, 트위터에도 관련 내용 없었음. 또한 중국 정부는 미국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미국이 단행한 이후로 연기 하는 등 신중한 모습

독일 DAX 3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2,265.46	-0.32	홍콩항셱	28,241.67	-1.06
KOSDAQ	799.10	+0.43	영국	7,573.09	-0.27
DOW	24,174.82	휴장	독일	12,317.61	-0.26
NASDAQ	7,502.67	휴장	프랑스	5,320.50	+0.07
S&P 500	2,713.22	휴장	스페인	9,757.50	+1.00
상하이종합	2,759.13	-1.00	그리스	744.41	-0.20
일본	21,717.04	-0.31	이탈리아	21,686.61	-0.36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 주식시장 전망

종목별 차별화 기대

야간선물은 외국인 순매도(-77 계약)를 보였으나 0.05pt 상승한 292.60pt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15.50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보합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금융시장을 살펴보면 미 증시가 휴장인 가운데 유럽증시는 혼조 마감 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시간외 선물은 0.3% 내외 상승 했으며 국제유가(브렌트유 기준) 0.5% 상승 했다. 외환 시장에서는 경제지표 호전을 감안 유로화와 파운드화가 달러대비 강세를 보였다. 중국의 역외 위안화(0.35%)를 비롯한 신흥국 환율 또한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반발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중국 정부가 관세 부과 일정을 미국의 관세 부과 이후로 연기한 점, 위안화를 비롯한 신흥국 환율이 안정을 찾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다만, 시장참여자들은 다음날 있을 삼성전자 실적 발표와 미-중 관세 부과를 앞두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종목별 이슈에 따라 차별화 장세가 예상된다. 더불어 철광석을 비롯한 비철금속이 여전히 무역분쟁 우려감이 높아짐에 따라 2% 내외 하락한 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영국 서비스업지수 개선

독일 6 월 서비스업 PMI 지수는 전월(53.9) 보다 개선된 54.5 로 발표되었다. 이 결과 종합 PMI 도 전월(54.2) 보다 개선된 54.8로 발표되었다.

영국 6 월 서비스 PMI 지수는 전월(54.0) 보다 개선된 55.1 로 발표되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 유가 시간외 소폭 상승

국제유가는 미 증시가 휴장인 가운데 전일 미 증시 마감 후 API의 주간 원유재고 보고서를 통해 원유 재고가 450만 배럴 감소 했다고 발표한 데 힘입어 시간외로 상승 했다. 더불어 달러화 약세 또한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다만, WTI 기준 75 달러에 대한 부담감과 무역분쟁을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 상승폭은 제한되었다.

달러지수는 유로화가 주요국 경제지표 개선에 힘입어 강세를 보인 여파로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더불어 중국 정부가 미국보다 먼저 관세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 우려감을 표하며 미국 관세 부과 이후로 부과일을 연기하자 신흥국 환율 또한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미국시장이 휴장인 가운데 독일 10년물 국채금리는 소폭 상승했다. 경제지표 개선에 따른 결과로 추정한다.

금은 달러 약세에 힘입어 시간외로 상승 했다. 구리는 무역분쟁 이슈가 지속되자 매물 출회되며 하락 했다. 여타 비철금속 또한 동반 하락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1.73%, 철근도 0.82% 하락 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74.14	휴장	+5.12	Dollar Index	94.546	-0.05	-0.78
브렌트유	78.24	+0.62	+1.01	EUR/USD	1.1658	0.00	+0.90
금	1,253.50	휴장	-0.51	USD/JPY	110.49	-0.09	+0.21
은	16.043	휴장	-1.76	GBP/USD	1.3233	+0.30	+0.92
알루미늄	2,089.00	+0.43	-4.00	USD/CHF	0.9926	+0.01	-0.47
전기동	6,386.00	-1.62	-4.58	AUD/USD	0.7385	-0.01	+0.61
아연	2,700.00	-3.19	-6.12	USD/CAD	1.3145	+0.05	-1.48
옥수수	364.25	휴장	-2.41	USD/BRL	3.9128	+0.40	+1.34
밀	491.00	휴장	+1.66	USD/CNH	6.6429	-0.35	+0.38
대두	864.25	휴장	-2.62	USD/KRW	1114.50	-0.38	-0.28
커피	111.90	휴장	-4.93	USD/KRW NDF 1M	1115.50	+0.10	-0.65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2.831	휴장	+0.53	스페인	1.296	+0.80	-5.40
한국	2.549	-2.80	-2.60	포르투갈	1.745	+1.90	-8.80
일본	0.029	-0.40	-1.00	그리스	3.940	+1.30	-6.40
독일	0.305	+1.10	-1.60	이탈리아	2.651	+2.00	-15.40